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묵시의 문학적 특성 이해

이경실(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3-2)

I. 들어가는 말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한 책이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포로라는 상황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읽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포로라는 상황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통하여 시작된다. 아무도 포로라는 상황을 즐겁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 아래 포로라는 상황에 익숙하게 된다. 그들은 포로의 끝을 바라보면서 현재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종말에 대한 질문과, 다른 하나는 종말이 오기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생활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은 생겨나지 않았다. 바벨론 포로를 겪으며, 하나님 나라와 긴장을 이루는 제국들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타난다. 그러한 질문들은 바벨론 포로와 더불어 시작되어 계속되는 제국의 지배와 더불어 심화되었고, 다시금 새로운 형태의 종말에 대한 질문들이 나타날 때마다 종말에 대한 전승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깊어졌다. 마침내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 종말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절정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서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는 이들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공동체의 실존적인 질문들을 상기해야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포로시기를 하나님의 뜻에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종말이 오기까지 슬하게 반복되는 위기의 시기에 토라를 지키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자들이다.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토라를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는 책이다. 다니엘서에서 공동체의 삶의 자리는 7-12장에서 나타난다. 안티오쿠스 4세의 꺾박아래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는 면에서 자신들이 포로를 겪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역사 속에서 전해져 온 전승이었다. 특히나 포로를 경험하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생명을 걸고 토라를 지켰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계시를 발견하고,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포로, 종말, 토라 신앙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있는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본 논문은 다룰 것이다.

II. 다니엘서의 문학적 구조

최근의 성서연구방법은 문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통시적인 방법과 문학적인 통일성을 전제하는 공시적인 방법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다. 다니엘서 연구를 위하여도 이 두 가지 방

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

다니엘서 연구를 위하여 제일 먼저 본문의 통일성 있는 문학적 구조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다니엘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 I. 서론(다니엘서 1장)
- II. 다니엘서 A(다니엘서 2-7장)
- III. 다니엘서 B(다니엘서 7-12장)
- IV. 결론(다니엘서 12:5-13)

이 문학적 구조의 특징은 1장을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으로 보고 다니엘서 12장 5-13을 결론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니엘서 A인 2-7장과 다니엘서 B로 부르는 7-12장으로 나누어진다. 뒤에 상세히 보겠지만 다니엘서 A와 다니엘서 B는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다니엘서 A는 주전 6세기 포로시대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서 B는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의 억압 받는 공동체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다니엘서 A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방제국에 사는 디아스포라의 포로의 상황을 다루었다면, 다니엘서 B는 팔레스티노로 돌아온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포로로 해석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니엘서 A에서는 왕을 위하여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니엘서 B에서는 직접 꿈을 통해 계시를 받고 천사의 해석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난다. 7장을 양쪽에 포함하는 것은 7장이 한편으로는 다니엘서 A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다니엘서 B에 포함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의 본론과 구별되는 전체의 서론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1장과 12장 5-13절이 다니엘서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다니엘서 1장은 책 전체의 서론으로서 포로의 시작을 알린다(단 1:1-2).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2-7장의 이야기의 정황과 배경을 제시하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소개한다(Nickelsburg, 1981: 30). 뮐러(Muller, 1972: 279)에 따르면,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궁정의 지혜를 다룬 반면에, 다니엘서 2장, 4장, 그리고 5장은 맨틱(mantic) 지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는 궁정의 지혜와 맨틱 지혜를 함께 다룬다. 1장 17절에 따르면 다니엘이 궁정의 지혜인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고, 또한 모든 이상과 몽조인 맨틱 지혜를 다루고 있다고 진술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세의 율법에 신실한 유대 디아스포라들이다. 나아가서 다니엘서 1장은 2-7장과는 달리 예루살렘 의식을 제안함으로써 다니엘서 2-7장으로부터 7-12장으로 전환하게 된다(Wils, 1990: 80).

다니엘서 1장과 12장 5-13절은 다니엘서의 주요 주제인 포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은 포로의 시작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자의 주요 관심사인 포로의 마지막을 12장에서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로기의 시작은 포로기의 마지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결론(단 12:5-13)에서, 다니엘은 포로기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심이 있다. 기간이 한 때, 두 때와 반 때라고 명기되기는 하였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기간에 관한 용어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

추어져 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단 12:9). 다니엘은 두 가지를 알고 있다: 1) 고난을 통하여 지혜자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단 12:10); 2) 그들이 포로기가 끝날 때까지 포로를 견뎌야 한다. 포로의 유익은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박해의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다. 결론(12:5-13)은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대답은 묵시적인 결정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의 예언-성취의 구조에서 오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5-1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예언-성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1장과 12장 5-13절은 책 전체의 서론과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론(1장)과 결론(12:5-13)을 제외한다면 2-7장과 7-12장을 서로 구별할 수 있다. 2-7장이 주전 6세기 포로기의 디아스포라에 관한 것이지만,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 사는 백성들은 2-7장의 예언을 자신의 시대에 성취될 예언으로 읽었다. 즉,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종말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토라를 지켰던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왕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읽혔던 것이다. 2-7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성취될 미래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티오쿠스의 종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아래에 제시하는 문학적 구조를 통해 다니엘서 최종본문의 공식적인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I. 서론 : 포로의 시작(다니엘서 1장)

II. 예언

- A. 네 왕국 : 하늘의 왕국(다니엘서 2장)
- B. 박해와 극복 1 : 율법 중심의 경건(다니엘서 3장)
- C. 교만, 폐위와 칠십년 후의 회복(다니엘서 4장)
- C'. 신성모독, 폐위와 멸망(다니엘서 5장)
- B'. 박해와 극복 2 : 율법 중심의 경건(다니엘서 6장)
- A'. 네 왕국 : 하늘의 왕국(다니엘서 7장)

III. 성취

- A. 심판 :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의 신원(다니엘서 7장)
- B. 네 왕국의 마지막 왕(다니엘서 8장)
- C. 칠십 년 : 금식(다니엘서 9장)
- D. 회복과 칠십 이레 후의 회복(다니엘서 9:24-27)
- C'. 복역 : 슬퍼함(다니엘서 10장)
- B'. 네 왕국의 마지막 왕(다니엘서 11장)
- A'. 심판 : 백성/지혜자의 신원(다니엘서 12:1-4)

IV. 에필로그 :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다니엘서 12:5-13)

III. 다니엘서에 나타난 토라와 묵시문학의 장르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은 토라를 강조하는 부분(1-6장)과 묵시문학(7-12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니엘서 7-12장만이 묵시문학에 해당된다. 1-6장에 종말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는 있지만 이것을 묵시문학에 포함할 수는 없다. 1-6장은 묵시문학이라기보다는 토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토라와 토라에 순종하는 인물을 강조하는 1-6장과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를 가진 7-12장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의 특징이다. 처음에 묵시문학의 등장은 토라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니엘서의 독특한 특성은 토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기에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다니엘서 연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돕는데, 하나는 당대에 묵시문학은 이스라엘의 전승사적인 발전 가운데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묵시문학과 토라의 강조가 함께 한 책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시도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묵시문학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기에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묵시문학에 관한 연구 이전에 다니엘서에 관하여 친숙해지고 나서 다시 묵시문학을 연구해도 좋을 것이다. 비록 구약성경에는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하는 책이 다니엘서 한 권만 들어와 있지만, 다니엘서가 씌여진 당대에는 많은 묵시문학이 있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Nickelsburg, 1981: 575-600; Wright III, 1996: 140) 다니엘서보다 더 일찍 쓰인 묵시문학은 에녹1서이다. 에녹1서는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에 첫 번째 책인 파숫꾼의 책이라는 책은 다니엘서보다 30년 정도 일찍 쓰인 책이다. 포로후기에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 토라 중심의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서 제사장 전승을 강조하면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한 에녹1서의 파숫꾼의 책(에녹서 1-36장)이 나타난다. 파숫꾼의 책은 묵시문학의 장르를 사용하여 새로운 계시라는 틀을 가지고 기존의 신명기 신학에 의존하여 토라의 내용을 지킨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파숫꾼의 책의 도전에 직면하여 다니엘서는 토라의 권위와 동일화한 모세의 권위를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옹호하는 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어떻게 토라의 권위를 옹호하였을까? 기존의 에녹1서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계시의 도전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새로운 계시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오묘한 것을 알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이해되었지만(신 29:29), 이제 시대정신에 따라 새로운 계시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는 인간이 새로운 계시인 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7-8장). 그러나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다니엘 같이 토라에 순종하는 자(1-6장)만이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토라의 권위를 옹호한다. 그뿐 아니라 9장에 이르르면, 종말을 가리키는 새로운 계시는 다름 아닌 토라에 대한 해석임을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계시를 토라에 종속하고 토라의 권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압박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추구하는 시대적인 위기를 토라의 권위에 도전하는 묵시문학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묵시문학의 장르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계시를 토라에 종속시키고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당대에 당면한 위기를 어떻

게 해결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을 때 박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1장부터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던 교회 공동체의 관점을 알기 위하여 7-12장을 먼저 읽고 나중에 1-6장을 읽어야 한다. 왜 그들은 종말을 기다렸는가? 현재는 하나님과 사탄의 격전장이다. 사탄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들은 두 가지 입장에서 종말을 기다린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안티오쿠스 4세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멸망시킴으로 종말이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위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지녀왔던 모든 전승을 충동원하여 다니엘서를 완성하게 된다. 이 다니엘서의 사명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진정성 있는 계시인 종말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다.

첫째로, 다니엘서는 계시의 내용으로서 종말의 내용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며, 종말까지 남은 역사를 (한 때, 두 때, 반 때) 확인한다. 이러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대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하게 된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종말에 관한 사상을 전하기에 좋은 장르로서 주전 3세기와 2세기에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하던 장르였다. 그런데 당대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염려한 것은 묵시문학에서 강조하는 세계시라는 개념이 토라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저자가 행한 일은 묵시문학을 사용하여 종말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이스라엘의 전승 안에서 토착화하는 일이었다. 종말에 관한 사상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당대까지 발전된 바벨론 포로들의 고유한 네 왕국 사상의 연속성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고 묵시문학에서 강조하는 종말은 예레미야의 포로 칠십년이라는 예언과 연결되었다.

둘째로, 다니엘서의 저자가 해결하여야 했던 것은 묵시문학과 토라의 갈등이었다. 다니엘서 이전의 묵시문학인 에녹1서는 계시의 내용을 강조하는 토라에 맞서서 계시의 형식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 문헌들이었다. 당시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강조된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새로운 계시를 중보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한편으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종말에 관한 진정성 있는 계시를 알려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시에 맞서서 토라의 권위를 옹호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묵시문학의 장르인 다니엘서 7-12장에 1-6장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토라의 권위를 옹호하였다. 즉, 7-1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필요한 종말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1-6장에서는 그러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토라에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임을 간접적으로 선포한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는 임박한 종말 앞에서 하나님은 종말에 관한 계시의 내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한 그 계시를 오직 토라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함으로써 토라의 권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7-12장에서도 처음에는 새로운 계시 자체를 인정했지만, 다음 단계로 새로운 계시란 다름 아닌 토라에 대한 해석임을 드러냄으로 새로운 계시를 토라에 종속시키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IV. 다니엘서의 위치

개신교 한국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한 개역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또 십이 소 예언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칠십인역 성경의 책 배열 순서를 따른 것으로서, 다니엘서를 예언서의 하나로 읽고, 다니엘을 예언자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헬라어 번역 성경이전의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에 이어 셋째 부분으로 나오는 성(聖)문서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다니엘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곧, 본문의 범위에 있어서는 히브리 성경을 따르지만, 구약을 이루는 여러 책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는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을 좇고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읽는 것과 예언서로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는 것과 성문서로 보는 것은 해석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라는 것은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신명기 역사)와 예언자들의 글(예언서)로 이루어진바 이는 모세의 율법서인 토라를 설명하는 주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문서는 대체로 포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토라를 권위있게 여기며 토라에 순종하며 살려왔던 공동체의 신앙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포로후기의 유대 공동체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지 않고 성문서로 이해하려고 한 이유는 다니엘서에서 권위 있는 토라에 관한 설명을 찾기보다는 토라의 계명대로 살려고 했던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의 유대인들의 절실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6세기에는 다니엘로 대표되는 디아스포라들이 포로기의 위기를 토라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이겼으며, 이 승리에 대한 기억이 기원전 2세기에 위기를 당한 유대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금 토라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 1-6장은 7-12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이상으로 주어진다.

구약의 칠십인역의 배치를 따라 다니엘서를 구약의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해석을 위한 또 다른 해석학적인 출발점을 보여준다. 즉, 유대 공동체는 기원전 6세기의 사건에서 드러난 토라의 권위에 대하여 기원전 2세기의 신앙공동체가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인데 반하여, 기독교 공동체는 기원전 6세기의 다니엘의 예언이 기원전 2세기에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이해하는 것은 원래부터 예언문학의 형식을 빌린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로 이해하는 다니엘서의 방식에 대하여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묵시문학으로써 다니엘서 읽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익숙하고 쉬운 부분이지만, 7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묵시문학을 읽는 방법이 필요한 본문들이다. 다니엘서를 읽고 싶은 부분만을 읽지 않고 전체를 읽어 내려면,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다음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드러나는 다양한 견해를 이다.

다니엘서의 최종본문을 살필 경우, 전반부(1-6장)와 후반부(7-12장)가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부에는 주전 6세기의 포로시대를 사는 다니엘을 비롯한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황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이다.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포로시대를 살면서 400년을 뛰어 넘어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책의 전반부에 살았던 다니엘의 예언이 실제로 400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평적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책 7-12장의 내용들은 주전 2세기의 익명의 저자가 포로이전의 저자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사후예언(vaticinium ex eventu)의 형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보수적인 학자들과 진보적인 학자들 가운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되어왔다. 우선 다니엘서는 개신교들에게 구약성경 중의 예언서로 읽혀져야 한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성문서로 분류되었지만, 칠십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된다.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읽을 경우,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와 주전 2세기에 모세의 토라를 지켰던 공동체의 신앙고백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독교회의 전통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의 하나로 읽는 것이다.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읽을 때 보수적인 방법과 진보적인 방법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한다. 우선 통시적인 면에서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다른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다니엘서에는 주전 6세기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이야기와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치하를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주전 2세기를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에게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박해 사건은 다니엘의 예언을 재해석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익명의 저자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린 것은 거짓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시대가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 사후예언이라는 문학적 기법은 당대에 묵시문학의 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의 상황이 임박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당대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나온 오랜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남은 시기도 예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후예언이라는 문학기법은 이미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남은 종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려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전에는 다니엘서의 연구에 있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여겼지만 이제는 다니엘을 디아스포라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다니엘서를 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 전반부(1-6장)에서 다니엘은 누구였으며, 후반부(7-12장)에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 이 책의 최종본문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니엘서의 저자를 논하는 방법이다.

다니엘서는 19세기까지 주전 6세기의 현자인 다니엘의 예언으로 여겨왔다. 18세기부터 시작한 비평적인 이해는 다니엘서의 저작권, 연대규명과 성격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학자들은 언어와 역사와 신학과 논리에 근거하여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카비 시대에 씌여진 작품으로 여기게 되었다. 다니엘의 예언은

사후예언(ex eventu)이라는 형식으로 다니엘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고 주장되었다. 물론 이런 비평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론도 제기되었지만, 19세기말까지 이 책을 마카비 시대로 두려는 노력에 대해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게 되었다.

다니엘서 해석의 보수적인 방법은 이 책의 전반부인 1-6장을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역사로 보고, 7-12장은 다니엘의 예언으로서 역사의 종말에 이르는 시간표를 보여주는 코드로만 읽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7-12장에서 기원전 2세기를 살았던 공동체의 삶의 정황은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다니엘서는 우주의 종말에 관심 있는 자들의 다양한 해석의 집합장소가 되었다. 다니엘서를 세계사의 마지막에 이르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우주의 종말을 진단하려는 관심을 가지면서, 다니엘서(7-12장)가 씌여진 당대에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심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던 때에 제자들에 의하여 표현되었다(행 1:6). 주님은 때와 기한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비판하신다(행 1:9-11). 오히려 종말론적인 관심을 땅 끝까지 이르러 중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한 관심이 표현되었지만 결국 응답되지 않았고 종말을 알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단 7:25; 8:14; 12:12). 그리하여 다니엘서의 결론은 종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정해졌으니 기다리고(단 12:13),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종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가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간표로만 읽는 것은 거부하고, 종말을 사용하여 당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다니엘서를 자유주의적인 방법으로 읽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방법은 다니엘서 7-12장을 안티오쿠스의 박해 시대에 그들을 위로하고 견디게 하기 위하여 씌여진 역사적인 책으로 읽음으로 7-12장을 다니엘의 순수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사건이후에 기록하는 사후예언으로 보려고 한다. 이 방법은 역사비평의 영향아래 성경의 해석을 성경에서 서술하는 역사를 밝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앙공동체의 정경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관심이 부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의 연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론인 보수적인 방법과 자유적인 방법의 이분법으로 연구되어왔다. 최근의 학계에서는 현대의 성서연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조화를 강조한다. 우선 다니엘서가 하늘에서 갑자기 인간에게 내려온 책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 있는 인간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위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것은 이 책의 해석을 위하여 당대의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종교개혁적인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경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역사적인 한 가지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니엘서만큼은 종교개혁적인 전통아래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종말을 보여주는 단순한 상징과 기호로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니엘서가 속해 있는 묵시문학 안에 담겨진 진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에서부터 포로기까지의 전승들을 이해하여야 하는 만큼 다니엘서의 해석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당대의 신앙공동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부터 해석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일단 역사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적인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니엘서가 당대의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 상황의 종언과 함께 사라진 책이 아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오고 오는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기다리도록 돕는 정경의 기능을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인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일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공동체의 경험을 해석하는 정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정경으로서의 기능이 새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역사비평의 방법론의 문제와 관련된다. 역사비평방법은 성경의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발전된 것인데 어느 순간 성경을 과거에 제한시킴으로 성경이 과거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설명하지만 그것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해석학적인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연속성 아래 다니엘서가 과거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만이 아니라, 현재 신앙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종교개혁적인 전통 아래 읽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의 맥락 아래에서 읽을 뿐 아니라, 또한 다니엘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이해는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관점들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극단을 통합하고 있다. 일단 자유주의적 해석방법에서 보여주는 대로 본문이 두 가지 다른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은 기원전 2세기의 다니엘서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니엘의 이름으로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다니엘서를 두 가지 다른 삶의 정황이 편집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결론이 보수주의의 결론대로 거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수주의의 결론대로 한다면 다니엘서 7-12장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원전 6세기의 예언으로서 기원전 2세기와는 무관하게 아직도 오지 않은 종말을 언급하기에 기원전 2세기의 공동체의 상황의 박진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인 정경해석방법은 이 두 가지 극단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기원전 2세기의 다니엘서 저자는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련의 위기를 독립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미 포로기에 다니엘에 의하여 선포된 예언의 성취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예언은 사후예언이 아니라 포로시작부터 저자가 서있는 시대까지의 사건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의 최종본문은 다니엘의 예언과 성취를 담고 있기에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위기의 시대에 토라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간섭을 준비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는 관점을 따라 본문을 정경해석방법으로 이해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힘 있는 틀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VI. 다니엘서를 통한 구약 묵시문학의 새로운 이해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계시를 말한다. 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필요한가? 현실이 하나님의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묵시문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를 포기하고 저 세상만을 기다리는 자들의 문헌이 아니다. 묵시주의자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위 맨티시즘(manticism)의 틀을 가지고 있다. 땅에서의 갈등은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 실마리를 찾는다. 묵시주의자들은 갈등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의 탄식을 듣는다. 그들은 이 갈등의 바깥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갈등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갈등이 이미 해결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다. 오늘 이 시대에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묵시이다. 그들이 현실에서 보는 것은 왜곡되고, 억압되고, 뒤틀린 것들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보는 것은 온전한 것이요, 통합된 것이요, 조화된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현실의 왜곡에 절망하여 이 세상을 버리는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으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은 참다운 땅의 회복을 그릴 수 있다. 그들은 순간적인 반동으로 처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구약에서 묵시문학 연구가 중요하면서도 난이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묵시문학이 그 이전의 역사와 동떨어진 현상이거나, 역사의 한 순간에 갑자기 드러난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누적된 모든 전승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현상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토라와 왕권의 갈등, 그리고 예언, 제의와 지혜와 다양한 관계, 나아가서 포로 이후에 이 전승들의 심화된 연합과 갈등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묵시문학은 히브리 성서 또는 구약에 대한 해석학적인 차이가 어떻게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신약은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종말이 현실로 성취된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에녹1서와 다니엘서의 갈등에서부터 쿵란문헌을 거쳐 신약에 이르는 연결점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배경을 가진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하여는 본문에 드러난 만큼만 제한하고 최종본문 자체의 통일성에 관심을 갖고 다니엘서 자체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이다.

묵시문학에 담긴 전승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하여 묵시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아직도 학자들 간에 정확한 동의가 되지 않음으로 필자의 관점으로 시작할 수 없음을 밝힌다. 묵시문학 안에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적인 전승, 지혜전승, 그리고 제사장적인 전승 등이 담겨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전승과 제사장적인 전승은 같은 전승이라고 볼 수 있다. 묵시문학에서 나타나는 지혜전승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정경에서 보이는 지혜와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다. 묵시문학에서 나타나는 지혜전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계시에 관한 것이다. 계시를 받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계시의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전승이다. 제사장 전승은 성전을 하늘로 이해한다.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 전승이고, 하늘에서 받은 참 계시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지혜

전승이다. 그런 면에서 묵시문학에서는 제사장 전승과 지혜전승을 합하여 지혜전승으로 규정한다.

지혜전승은 땅과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면으로 묵시를 접근하는데 반하여, 예언전승은 역사적인 종말론 입장에서 묵시에 접근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을 외치는 것인데, 예언은 현실의 변혁에 대한 박진감이 살아있다. 예언은 심판 후에 찾아올 종말 후의 회복도 제시하지만, 현실의 변혁이 더 강하다. 묵시문학은 예언에 비하여 종말론적인 용어가 많아지고 계시나 환상 등의 신비적인 용어가 많아진다는 면에서 예언과 다르지만 그것이 현실로 포기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묵시문학은 종말론적인 것을 함축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만이 참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이상과 현실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묵시문학이 더 이상 역사적인 현실에 관심을 잃고 탈 역사를 지향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묵시문학을 넘어선 영지주의(gnosticism)를 설명하는 셈이다. 묵시문학은 예언보다는 이상을 말하지만 역사를 벗어나지 않고, 현실 안에서 자신의 그룹의 합법성을 강조하거나 종말의 선언아래 하나님의 간섭을 현실에서 기다리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묵시문학 안에서 예언은 역사의 종말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혜로부터 묵시문학으로 접근하는 시도의 타당성은 묵시문학을 참 계시의 탐구로 이해하는 것이다. 묵시문학이 현실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종말아래 사라진다는 면에서 예언의 전승아래 있지만, 또한 묵시문학이 다른 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는 계시의 내용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지혜의 전승아래 있는 것이다. 계시를 말할 때는 계시의 형식과 계시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계시의 형식으로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보좌전승이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성전을 하늘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삼층의 하늘로 이해하는 전승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정결한 중보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에 맞추어질 때 예언의 종말과 유사하고, 천상의 우주론적인 지혜를 파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전승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과 지혜의 어느 하나로부터 묵시문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옹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묵시문학 안에서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하여 묵시문학을 연구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주목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종말론이며 다른 하나는 우주론이다. 종말론은 다니엘서와 같이 임박한 종말론이 있고 예복서와 같이 아직도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하는 그룹의 현실적인 합법화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다. 우주론의 경우에도 임박한 종말론이 약한 묵시문학에서는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 중보자가 율기 같은 지혜문헌에서 금지되었던 우주의 지혜에 근접함으로 그를 시조로 하는 공동체들에게 참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만든다.